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9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상안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하 1:17-27	인 도 자
설 교	슬픔을 노래하라!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18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남영아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6시(월-금)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남관희 집사	안찬호 성도
선 교 사 역	서정길 장로	이오현 집사
미디어 사 역	박종갑 장로	윤지호 집사
실 버 사 역	김상안 집사	김정순 권사
친 교 사 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 역	이오현 집사	안미나 집사
양 육 사 역	Kaitlan Hronek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8년 1월 6일 제7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를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동의 세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세대,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쾌락과 고통은 넘쳐나는 감각의 시대이지만 참된 기쁨과 슬픔을 잊어버린 무감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이 슬픔만을 표현하지 않고 기쁨도 표현한다는 사실에는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서로 상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웃음과 쾌락만 있지 영혼을 진동케 하는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기쁨을 상실하였기에 사람을 향한 진실한 애통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이 찾아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영혼을 기울일 마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완전히 대면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죽음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와 문화는 이것과 너무도 끔찍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 슬픔이 사라진 것은 진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복을 주신 생명으로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명이 뉴스거리로 여겨질 뿐입니다. 뉴스거리로 전락된 생명에는 어떠한 존엄성도 찾을 수 없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애통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통해 사울의 적의와 요나단의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미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삶의 애통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은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 받는 것은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이별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 또한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여 맞닥뜨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슬퍼할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슬퍼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 슬픔을 감추거나 축소하여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가능한 한 빨리 잊거나, 할 수 있는 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5:4]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가르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선언은 참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눅6:21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30:5). "슬픔이 웃음 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전7:3). 우는 자가 웃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가가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슬픔을 통해서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당해 본 사람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며,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숙해지고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통해서 남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슬픔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2008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3. **새벽기도회 시간이 오전 5시 30분에서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신년 가정심방을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달력이나 교인주소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설교 CD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설교시리즈도 가능합니다.(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비유, 요나서 강해, 룻기강해, 다윗강해)**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50.00	
감사헌금:	$250.00	
주일헌금:	$36.00	
특별헌금:	$0.00	**합 계: $336.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